

10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 ~ 2] 다음은 교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진행된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생활하오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복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은 여름에 땀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넥타이까지 매면 정말 답답합니다. 또 우리 학교 교복은 단추를 채우는 셔츠 스타일로 되어 있어 세탁 후 다림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옷 전체를 다림질하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칼라와 소매 부분만 다림질해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잠시 멈추었다가 웃으며) 그렇다고요?

교복이 편한가?		대안이 필요한가?	
편함	불편	불필요	필요
25	75	16	84

(표를 제시하며) 보이시나요? 제가 만나 본 많은 학생들이 교복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잠시 멈추었다가) 그래서 저는 생활복을 제안합니다. 생활복은 땀을 잘 흡수하고 활동하기 편해서 실용성이 높습니다. 또 세탁을 하더라도 다림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을 입는다면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생활복에는 색깔이나 무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활복은 교복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근의 많은 학교들이 이미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할 때 우리 학교도 더 이상 생활복 도입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화제 : 생활복 제안

청중 : 1, 2, 3학년 모두

발표 전략

- 내가 느꼈던 불편함을 솔직하게 언급해서 청중들의 공감을 유도함. ①
-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시각 자료로 제시함. ②
- 생활복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함. ③
- 교복의 문제점을 먼저 제시한 후 대안을 제시함. ④

발표의 상황 : 방송실 스튜디오(카메라로 중계방송)

- 청중들의 대답을 직접 듣는 것처럼 행동함. ⑤

2. 다음은 발표가 있는 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생들의 반응이다. 댓글을 참고하여 발표자가 생활복 도입 찬반 토론회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생활복 도입 제안!

편하고 예쁜 생활복 함께 입어요.

↳ 찬성! 3학년은 교복이 작아졌어요.

lee1995

↳ 1학년은 교복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새내기

↳ 적극 찬성! 생활복을 채택한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생활복이 좋다고 해요.

모범생

↳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비싸면 사기가 좀 꺼려져요.

Steve_곽s

↳ 싸게 살 방법 없나요?

알뜰녀

↳ 이걸 아니죠. 교복은 불편하더라도 단정하게 입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복좋아

↳ 만약 예쁘지 않다면 전 반대!

리벤더

- ① 학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니 학년별로 생활복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봐야겠어.
- ② 생활복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고려하여 생활복을 채택한 주변 학교의 반응을 조사해서 제시해야겠어.
- ③ 구입 비용을 염려하는 학생들에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 구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어.
- ④ 교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복을 사복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음을 강조해야겠어.
- ⑤ 디자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 봐야겠어.

3. 다음 대화에서 '석기'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주석: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주신대.
 주석: 뭐라고? 너 얼마 전에 바꿨잖아. 그런데 또 산다고?
 석기: 뭐, 어때? 지난주에 A사에서 새 제품이 나왔거든. 광고를 보니까 멋지더라고.
 주석: 광고만 너무 믿지 말고,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도 따져 봐야지.
 석기: 아니, 물건 하나 사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난 그냥 살 거야.
 주석: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여러 제품을 평가해 놓은 사이트도 있더라. 참고해 봐. 정말이지 가격만 비싸고 성능이 엉망인 것도 많거든.
 석기: 야야, 그만 좀 해. 내가 살 것도 아니잖아.

- ① 상대가 인정할 경우에만 화제를 바꿔야 해.
- ② 상대의 충고를 성의 있게 듣는 자세가 필요해.
- ③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아.
- ④ 상대와 언쟁이 발생하면 대화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아.
- ⑤ 상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해.

[4~5] 다음은 텔레비전 인터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안녕하세요, 김현정 선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뷰는 처음이시라고요?
 선 수: 네. 지금 너무 떨려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행자: 저처럼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할 때마다 떨려서 심호흡을 크게 여러 번 하고 물을 마십니다. 한번 해 보세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선 수: 네. ㉠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신 분 말씀이니 믿고 해 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물을 마시고는) 정말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네요.
 진행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은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군요. 제가 앞자리에서 손수건 건넸 거 기억하시죠?
 선 수: 네. 물론 기억합니다. 그 손수건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행자: 많은 분들이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해 합니다.
 선 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다.)
 진행자: ㉡ 표정을 보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선 수: 제가 인생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을 무거운 심봉을 들어 울리며 보냈잖아요. 그 힘든 시간들이 눈앞을 스치더라고요.
 진행자: ㉢ (고개를 가웃거리며) 심봉이요? 심봉이라는 게?
 선 수: 아, 심봉은 역기 가운데 손잡이 부분인데요. 저희 역도 선수들은 역기를 들어 올린다는 말 대신 심봉을 들어 올린다고 하거든요.
 진행자: 네, 그렇군요.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선 수: 일단 하고 있는 공부를 끝내고 청소년 스포츠 재단을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 이미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신 걸 보니 평소 김 선수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겠네요.

김 선수가 선수 시절에 보여 준 열정과 능력이라면 그 일도 분명히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떨린다고 하셨는데 떨지 않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선 수: 방송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 아무래도 조용하고 분위기가 있는 찻집이라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져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어요.

4. 위 인터뷰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에서 화자의 경험 및 전문성이 청자가 받아들이는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의 이해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구두 언어를 통해 화자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전달됨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인터뷰를 수업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내린 평가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A~E는 담화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들입니다. '진행자의 담화'를 각 항목에 따라 평가해 보세요.

['진행자의 담화' - 상호 작용 적절성 평가]

- A.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고려하였는가?
 -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을 제시하였다. ①
- B. 상황의 공식성을 고려하였는가?
 - 대중들이 시청하는 담화이므로 상대방의 직업에 관련된 질문만 하였다. ②
- C.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였는가?
 - 인터뷰 경험이 없는 상대방의 긴장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③
- D. 담화의 유형에 어울리는 말하기 태도를 고려하였는가?
 -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④
- E. 담화의 목적을 고려하였는가?
 - 시청자가 알고 싶어 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질문하였다. ⑤

6. 작문 상황을 바꾸어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문을 읽고, 작성할 글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룩말은 종종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다. 얼룩무늬가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룩말은 주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한다. 무리를 지어 다니면 얼룩말의 얼룩무늬들이 서로 연결되어 커다란 물체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 크기에 부담을 느낀 맹수들이 쉽게 얼룩말을 공격하지 못한다.

— < 조 건 > —
◦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할 것.
◦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글의 목적을 달리 할 것.

- ① 얼룩말과 맹수들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면,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② 얼룩말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점을 활용하면, 친구들에게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권유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③ 얼룩말이 만들어낸 커다란 무늬가 맹수들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④ 얼룩말이 자신의 무늬 때문에 종종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점을 활용하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알리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⑤ 얼룩말의 연결된 무늬를 보고 맹수가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최강팀이 알보지 못하도록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축구부원들을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7~8] 다음은 글쓰기 과제와 그에 따른 학생 의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글쓰기 과제]

‘환경 문제’에 관한 협동 글쓰기

[과제 수행의 유의점]

- 1.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여 중심 내용을 정할 것.
- 2.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적인 글을 쓸 것.
- 3.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게 서술할 것.

[학생 의견]

민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경의 중요성은 알지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가 부족해. 쓰레기 분리 배출조차 안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태도를 바꿔야만 해.	재희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없는 게 문제야. 벌칙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처럼 강력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해.
---	--

7. ‘과제 수행의 유의점’을 바탕으로 한 협동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민수와 재희가 말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제시한다.
- ② 민수가 말한 개인적 측면과 재희가 말한 제도적 측면을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 ③ 민수와 재희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서술한다.
- ④ 재희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을 조사해서 제시한다.
- ⑤ 민수의 의견을 반영할 때는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자료로 제시하여 내용을 명료화한다.

8. <조건>에 맞게 글의 제목을 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 은유법을 사용할 것.
◦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포괄할 것.

- ① 정책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뀝니다
- ② 생각은 철저히, 처벌은 강력하게
- ③ 환경 사랑의 출발, 생활 속에서부터
- ④ 경제와 환경, 우리나라의 빛과 그림자
- ⑤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 태도와 제도의 변화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 다음 그림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 보자.



김홍도, 「타작도」

[과제 수행 기록]

오늘의 작문 과제는 그림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 보는 것이었다. 그림이 풍속화인 점을 고려하여 「타작도」에 드러난 조선 시대 농촌의 생활 모습에 대한 감상'을 주제로 하여 글을 써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작품의 인상적인 부분들을 포착하여 각각에 대한 주관적 감상을 담은 글을 써 보았다.

[학생의 글]

김홍도의 「타작도」는 조선 시대 농촌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 조선 시대는 화가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먼저 그림 가운데에는 통나무를 사이에 두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그려져 있다. 이 개상을 둘러싸고 가을이 되어 ㉡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농부들이 신나 보인다. ㉢ 농부들 사이에 놓인 그 통나무는 '개상'이라고 한다는데, 조선 시대에 곡식 낱알을 떨어내는 데 사용한 일종의 탈곡기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그림 왼쪽에서 곡식단을 개상에 힘껏 내리치려는 농부의 모습도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한편, 그림의 오른쪽 위에는 술병을 ㉣ 앞에서 두고서 비스듬히 기대 누워 있는 양반이 그려져 있다. 일하는 농부들을 거들지 않고 누워 있는 양반이 얄밋게 보이기도 하고 게을러 보이기도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작가 김홍도는 한 장의 그림 속에 농촌의 어느 가을 하루를 포착하여 담아냄으로써 조선 시대 서로 다른 계층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② ㉡은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④ ㉣은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앞에'로 바꾼다.
- ⑤ ㉤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이 때문에'로 바꾼다.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다.
- ②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객관적 정보를 전달한다.
- ③ 대상의 특성과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다른 작품과 비교한다.
- ④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대상에서 받은 교훈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⑤ 대상의 몇 부분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감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11. <보기 1>은 문법 수업의 한 장면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탐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선생님: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발음 생활뿐만 아니라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려고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ㄱ, ㅈ, ㅊ, ㅌ, ㅍ,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너, 노, 뉴]로 발음한다.

—<보기 2>—

뿔이다, 웃어른, 굳이, 집일, 색연필

① ‘뿔이다’를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② ‘웃어른’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③ ‘굳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④ ‘집일’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3항, 제18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⑤ ‘색연필’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29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12.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 ① ‘다듬이’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② ‘마개’를 ‘막애’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③ ‘삼발이’를 ‘삼바리’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④ ‘귀머거리’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⑤ ‘뿔개’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하다01

① 「동사」 【…을】

- ①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
 ▶ 운동을 하다./사랑을 하다.
- ② 먹을 것, 입을 것, 땀감 따위를 만들거나 장만하다.
 ▶ 나무를 하다./밥을 하다.
- ③ 표정이나 태도 따위를 짓거나 나타내다.
 ▶ 어두운 얼굴을 하다.

② 「보조동사」

- ① (동사나 형용사 뒤에 '-게 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내는 말.
 ▶ 숙제를 하게 하다./노래를 부르게 하다./몸을 청결하게 하다.

-하다02 「접사」

- ①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운동하다./사랑하다.
- ②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건강하다./순수하다.
- ③ (의성·의태어 이외의 일부 성상 부사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달리하다./빨리하다.
- ④ (몇몇 의존 명사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채하다./척하다./듯하다.

- ① '하다01①'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겠군.
- ② '하다01②'는 '하다01①'과는 달리 혼자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붙어 사용되었군.
- ③ '-하다02'는 앞 단어에 붙어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겠군.
- ④ '하다01①②'의 용례로 '새 옷을 한 벌 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물에 빠질 뻔하다.'의 '뻔하다'는 '-하다02②'의 용례라고 할 수 있겠군.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1

선생님: 담화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를 일치시켜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반면 명령이나 요청 등과 같이 청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예의에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화자의 의도와는 다른 종결 표현을 사용하거나, '저기', '만', '좀'과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 보기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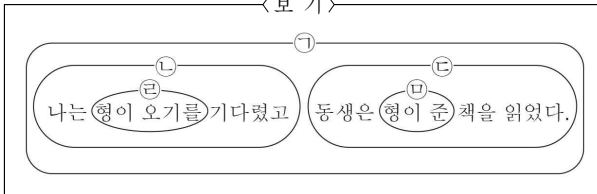
2

어머니: (지연을 토닥이며) ㉠ 저기, 지연아 이제 좀 일어나라.
지 연: (힘없이 일어나며) ㉡ 엄마, 선생님께 학교에 조금 늦을 거 같다고 전화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디 아프니?
지 연: 네, 그런 것 같아요. 열도 좀 나고요.
어머니: ㉢ 그럼 선생님께 전화 드리고 엄마랑 병원에 가자.
지 연: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소 연: (거실에서 큰 소리로) 지연아, 학교 늦겠다. ㉣ 빨리 가라.
어머니: 소연아! ㉤ 동생이 아프다니까 조금만 작은 소리로 말해 주면 참 좋겠다.

- ① ㉠: 명령의 의도를 '저기', '좀' 등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고 있군.
- ② ㉡: 요청의 의도를 의문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군.
- ③ ㉢: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켜 청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군.
- ④ ㉣: 화자의 명령에 대한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키지 않고 있군.
- ⑤ ㉤: 명령의 의도를 평서형 종결 표현과 '만'과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군.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은, ㉡과 ㉢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② ㉡은, '나는'의 서술어인 ㉢을 안고 있다.
- ③ ㉡과 ㉢은, 각각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 ④ ㉢과 ㉣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난다.
- ⑤ ㉣은, '책'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면서 ㉢에 안겨 있다.

빠.른.정.답.

3	4	2	4	2
5	5	5	5	5
4	4	5	2	4

1. [출제의도] 담화 유형과 화제 특성 및 상황에 맞게 내용을 생성한다.
- 대화 상황에 적절한 내용을 구성하고, 아울러 비언어적 표현까지 구사할 수 있어야 올바른 말하기라 할 수 있다. 문제의 상황은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생활복의 단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복의 단점을 언급한다는 메모는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셔츠의 보이는 부분만을 다림질했던 경험을 언급하여 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⑤ 상대방이 앞에 있는 듯 묻고 대답을 듣는 듯 멈추었다 발화를 이어가는 것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떠올릴 수 있다.
2. [출제의도] 다양한 화제를 수집·탐구하고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다.
- 발표 후 다양한 학생들이 나름의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찬반 토론회를 준비하는 발표자는 청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화제를 적절히 준비해야 한다.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사복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교복의 기능만을 언급하는 것이어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없다.
- [오답풀이] ① 3학년은 교복이 작아져서 찬성을 하고 있고, 1학년은 교복을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로의 상황이 달라 견해 차가 생겼다. ② 생활복을 채택한 다른 학교에 대해 언급한 학생(모범생)을 고려하면 주변 학교의 반응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의사소통을 위한 화법을 이해한다.
- 제시문은 석기와 주석의 대화이다. 주석은 석기에게 스마트폰을 살 때,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 등도 따져 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성능을 비교해 놓은 사이트들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석기는 이런 주석의 말을 가볍게 대하며 진지하게 듣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석기에게, 상대의 충고를 성의 있게 들으라는 말을 해 줄 수 있다.
4. [출제의도] 화법의 요소나 기능을 이해한다.
- 선수가 은퇴 후 역도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진행자는 김 선수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를 알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김 선수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5. [출제의도] 담화 참여자가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파악

- 한다.
-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해 보라는 물음이다. 진행자는 ‘인터뷰가 처음이라면서요?’나 ‘제가 앞자리에서 손수건 건넨 거 기억하시죠?’와 같이 선수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질문함으로써, B의 조건을 위배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제가 앞자리에서 손수건 건넨 거 기억하시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한번 해 보세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김 선수가 선수 시절에 보여 준 열정과 능력이라면 그 일도 분명히 잘하실 겁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작문 상황에 맞게 글의 내용을 구상한다.
- 제시된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은 ⑤이다. ‘얼룩말의 연결된 무늬를 보고 맹수가 공격하지 못한다.’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축구부원들’이라는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설명문을 논설문으로 바꾸어 쓰려 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을 달리 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글의 목적을 달리하지 못했다. ②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친구들’이라는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했으며, 권유하는 글을 쓴다고 했으므로 글의 목적을 달리했다. ③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깨달음을 전하는 글로 쓴다고 했으므로 글의 목적을 달리했다. 그러나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7. [출제의도] 적절하게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
- 민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⑤의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는 내용은 이와 무관하므로 민수의 의견을 명료화하기에 부적절하다.
- [오답풀이] ② 민수는 개인의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재회는 제도적 개선을 말하고 있으므로 둘을 포괄한다는 내용은 유의점1에 해당하여 적절하다. ④ 재회의 의견 중 선진국처럼 강력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자료이고 유의점2에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한다.
- ⑤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민수와 재회의 의견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각각이 지적하고 있는 태도의 변화, 제도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은유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게 ‘열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재회의 의견만을 담고 있고 은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민수와 재회의 의견이 모두 나타났으나 은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출발’이라는 은유법을 사용했으나 재회의 의견이 담겨있지 않다. ④ ‘빛과 그림자’라는 은유적 표현을 썼지만 두 사람의 의견과 무관하다.

9. [출제의도] 적절한 글쓰기 전략을 구사한다.

주어진 글쓰기 과제는 그림에 대한 감상문 쓰기이다. 이에 대한 ‘과제 수행 기록’에 따르면, 그림에서 받은 인상적인 부분들로 나누어 글을 쓰겠다는 전략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특정 과제가 주어져 있으므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다른 작품과 비교하겠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0.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표현을 바르게 수정한다.

문맥상 ㉮ ‘그렇기 때문에’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등을 쓰는 것이 문장의 흐름을 고려한 고쳐 쓰기 방법이다.

[오답풀이] ㉮ ‘과제 수행 기록’에 따르면 ‘농촌 생활 모습에 대한 감상’을 쓰는 것이 글의 목적이므로,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서’는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에’가 더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이해하기

‘집일’은 제29항에 따라 ‘ㄴ’ 소리가 첨가되고, 제18항에 따라 ‘ㅂ’이 [ㅁ]으로 발음되어 [집닐]로 발음된다. 따라서 ‘집일’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29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덜이다’는 제13항에 따라 [더피다]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웃어른’은 제15항에 따라 [우더른]으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굳이’는 제17항에 따라 [구지]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색연필’은 제29항에 따라 ‘ㄴ’ 소리가 첨가되고, 제18항에 따라 ‘ㄱ’이 [ㅇ]으로 발음되어 [생년필]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29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귀머거리’는 동사 ‘귀먹다’의 어간 ‘귀먹-’에 접미사 ‘-어리’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 즉,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의 규정을 적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다듬이’는 동사 ‘다듬다’의 어간 ‘다듬-’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막대’는 동사 ‘막다’의 어간 ‘막-’에 접미사 ‘-애’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삼발이’는 명사 ‘삼발’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덜개’는 동사 ‘덜다’의

어간 ‘덜-’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개’가 붙어서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사전을 통해 단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뻔하다’에서 ‘뻔-’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하다02㉮’가 아니라 ‘-하다02㉮’의 용례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의 주어 ‘나는’의 서술어는 ‘기다렸고’이고, ㉮은 ‘기다렸고’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므로 ㉮을 ‘나는’의 서술어라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직접발화와 간접발화 파악하기

㉮에서 소연은, 학교에 늦은 지연에게 학교에 빨리 가라고 명령하려는 의도를 ‘가라’는 명령형 종결 표현을 통해 지연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키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